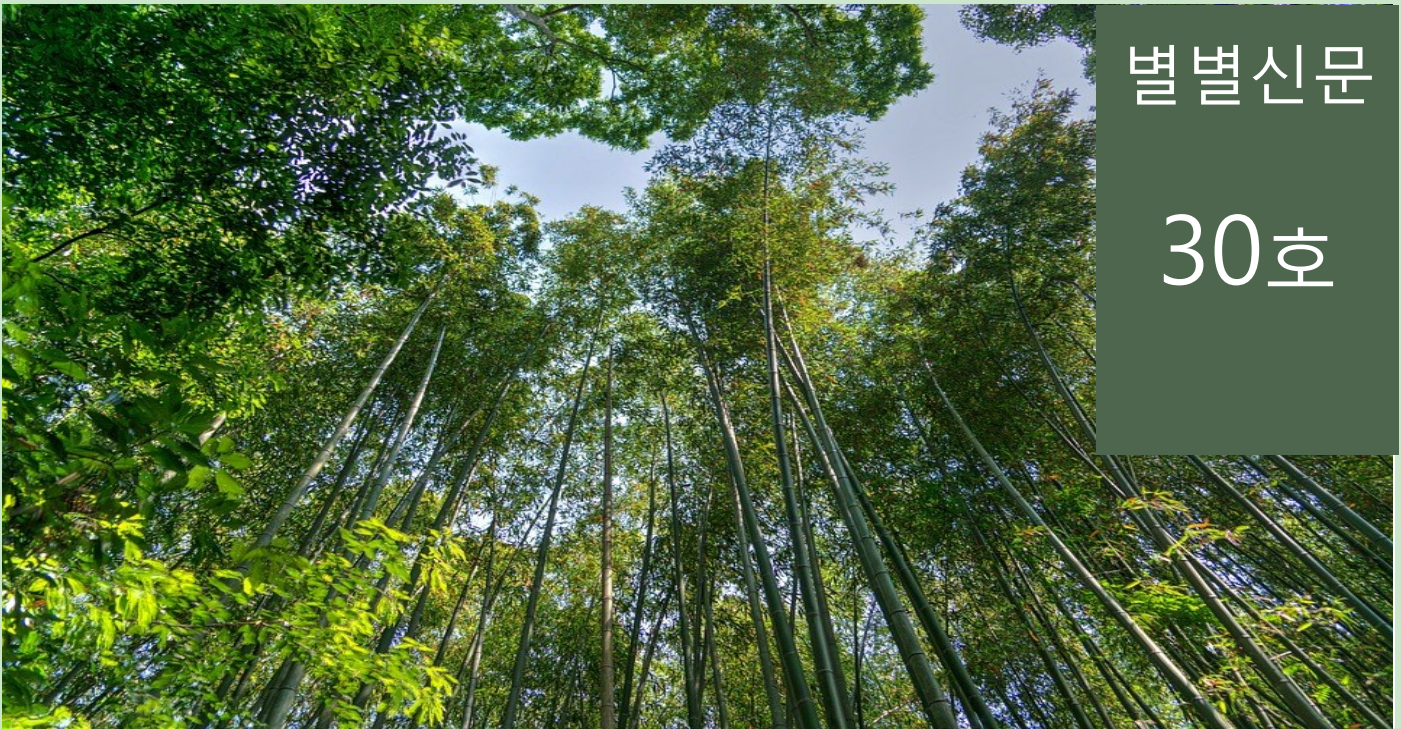




별별신문

30호

| 발 행 일 자 | 2017년 6월 28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별신문 30호에서는

HIV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인의 인권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근 여성 한 분이 창원의 개인 산부인과 진료 중 HIV 양성 확정을 받자, 이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여성의 소재가 파악 되지 않으며 성산업에 종사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뒷면에서 계속)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 상담, 심리상담 02-953-6279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빛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폭행, 협박** 등을 당할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은 당연하구요!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 톡

치료만 잘하면
30년 이상 생존 가능
에이즈는 불치병이 아닌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에이즈는 이런 경우 감염되지 않습니다.
입맞춤, 악수, 운동, 식사 등의 신체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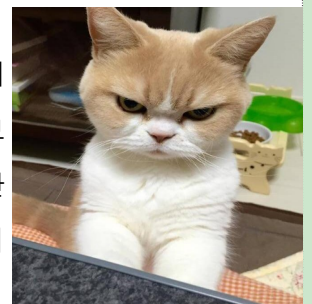
이처럼 보건소나 언론은 확진 판정 받은 여성의 신분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여 드러내며 공포감을 조장하고, 창원 지역의 성구매자들의 감염과 안전만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보여 당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마녀사냥을 멈추고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보건소의 비밀누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HIV에이즈 감염은 누구에게나 예방이 필요한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관점 하에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부터 사회차원에서 보호 하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실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도 불리는 HIV에이즈는 당뇨병과 같이 치료제 복용으로 관리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도 간단하게 익명보장 하에 신속하게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를 통하여 익명 상담과 정보제공을 받고 원하는 경우 생활지원 및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성애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존재들(특히 게이 남성이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HIV에이즈 감염 문제를 결부시켜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로 막고 성구매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보건당국과 언론들을 보며, 이름은 더욱 화력을 높여 HIV에이즈 감염인 인권 침해와 다양한 존재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야겠다는 결의를 다져봅니다!



만약 에이즈 감염 양성, 확진 판정 이후 비밀 누설 등의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을 경우
이름 상담소(02-953-6279)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1599-8105 에이즈 상담지원센터에 무료 익명 전화상담도 가능하구요.

3
온·오프라인 무료상담 받기

+

에이즈상담지원센터

1599-8105

www.aids114.or.kr